

PET 장치에 요구되는 모든 성능 중 기본이 되는 것은 해상력, 시간분해능, 에너지분해능, 및 검출효율이다. 본 연구는 이들 기본성능을 중점으로 PET 장치 및 화상재구성법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과 장래의 전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PET장치 및 화상재구성법에 관한 새로운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였다. 축차근사형 algorithm, PET용 검출기 unit, PET용 신틸레이터, volume PET와 3차원 화상재구성 algorithm 등의 제안에 대하여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volume PET는 종래의 2차원 PET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던 여러 어려운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 비약적인 성능향상이 기대된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방법론에 있어 공통적인 것은 다른 분야의 간단한 방법의 전용이 아니라 PET 특유의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어 PET 독자의 방법론으로서 제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종래의 2차원 PET에서는 원리적으로는 X선CT 방법론의 전용 또는 가공을 시행하는 면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본래 PET가 갖는 잠재능력을 희생하면서 시스템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시스템 상에서는 장치의 비약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새로운 방법론의 실현을 위해서는 종전의 시스템 및 기술로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PET화상의 질 향상을 바란다면 PET의 기본에 관점을 설치한 시스템의 재평가를 시행하고, super computer 등의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종래 보다 폭 넓은 전문분야의 전문인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Volume PET의 개발에 있어서는 일부에 신중론도 있으나 구미에서는 이미 volume PET의 개발에 여러 연구진이 활발한 기초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그 성과에 의해 현재 2차원 PET를 개량하여 2차원과 3차원의 중간적인 PET장치의 시도도 기대된다.

18) 포획한 바스켓과 내시경이 얽힌 환자에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적용한 췌관결석의 치료 일례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진단방사선과
손순룡*, 이원홍, 이희정, 엄준용, 진정현, 김건중

1980년 신장결석 제거에 처음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이 도입된 이래, 담낭 및 담도결석 치료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외 보고들에 의하면 체외충격파 쇄석술은 담도결석보다 췌관 결석 치료에 더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여러 번 시행해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치료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내시경적 췌관괄약근절개술(EPST)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췌관결석의 제거에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조영술 하에 결석을 제거하려다가 결석을 포획한 바스켓이 내시경 안에서 장애를 일으켜 응급으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행하여 췌관결석을 완전히 제거한 일례를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